

[2030세대 특집]

연애·결혼·출산·육아의식 집중 분석

■ 2030세대 연애와 결혼, 출산과 육아의식 현황

- _ 연애·결혼 좋지만, 출산·육아 싫어
- _ 케이스탯 조사설계 및 방법 설명
- ※ ‘결혼과 출산’ 관련 기존 케이스탯 조사·분석 안내

■ 연애와 결혼의식 분석

- _ 남성과 여성 간 거리, 연애보다 결혼에서 멀어져
- _ 연애 관련 단어, ‘커플 모임’ 단어만 부정 느낌 높아
- _ 연애에 미치는 소득 요인, 크지 않아
- _ 결혼 관련 단어, ‘명절’ 비롯 부정 느낌 단어 많아져
- _ 결혼 단어 자체, 소득에 따라 느낌 매우 달라
- _ 추가 조사 : 연애, 내 상황 생각하면 쉽지 않아
- _ 추가 조사 : 결혼, ‘행복한 것’이지만 현실은 어렵다

■ 출산과 육아의식 분석

- _ 자녀 있는 계층과 다른 계층간 거리 멀어
- _ 출산 관련 단어, ‘아기’만 유일하게 긍정 느낌
- _ 출산 관련 단어 느낌, 소득 연관성 낮아
- _ 육아 단어, ‘아이 옷’만 긍정 느낌
- _ 육아에 대한 단어 느낌 역시 소득 요인 낮아
- _ 추가 조사 : 아기, 소중한 존재고 ‘갖고 싶다’ 높아
- _ 추가 조사 : 육아는 힘든 일이고, 권유 않는다

■ 연애와 결혼, 출산과 육아의식 종합 분석

- _ 연애·결혼 좌표와 육아·출산 좌표의 종합 결과
- _ 주요 분면에 대한 인구특성 분석 결과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7월 9일(금) ~ 7월 11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20~30대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1\%p$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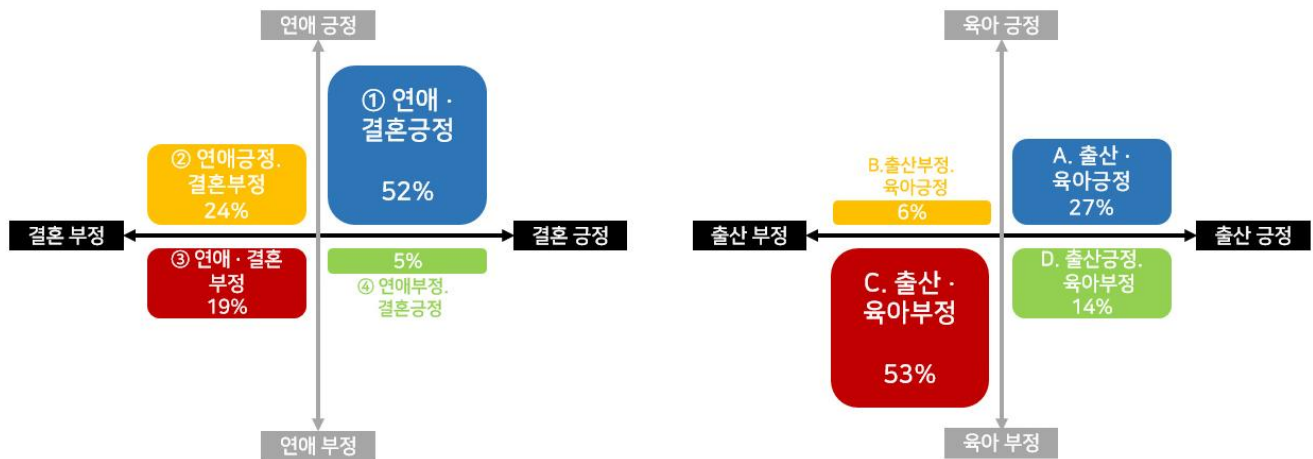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2030세대 연애와 결혼, 출산과 육아의식 현황

연애·결혼 좋지만, 출산·육아 싫어

- 2030세대의 연애·결혼·출산·육아의식을 종합하면, ‘연애와 결혼은 좋지만, 출산과 육아는 싫다’로 요약됨
- 먼저 연애와 결혼에 대한 2030세대 의식조사 결과를 4분면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연애·결혼 긍정 : 52%
 - ② 연애긍정, 결혼부정 : 24%
 - ③ 연애·결혼 부정 : 19%
 - ④ 연애부정, 결혼긍정 : 5%
- 세로 축인 ‘연애’만을 놓고 볼 때 긍정적인 비중은 76%이고, 가로 축인 ‘결혼’만을 놓고 볼 때 긍정비중은 57%임
- 조사설계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참고
- 출산과 육아에 대한 4분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A. 출산·육아 긍정 : 27%
 - B. 출산부정, 육아긍정 : 6%
 - C. 출산·육아 부정 : 53%
 - D. 출산긍정, 육아부정 : 14%
- ‘출산’만을 놓고 볼 때 긍정비중은 41%로 절반에 못 미치고, ‘육아’만을 놓고 볼 때 긍정비중은 33%로 더 낮음



Kstat Point

- ☑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고령화사회’이고,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음
 - : 이는 부양할 인구는 늘고, 일 할 인구는 줄고 있다는 의미임
- ☑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 2020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불과함
 - : 유엔이 조사한 19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 : 작년에는 이른 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함
 - : 2020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는 약 27만 5800명인데 비해 사망한 사람은 약 30만 7700명으로 더 많음
- ☑ 하지만 인구정책의 핵심 대상인 2030세대의 의식을 살펴보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많아,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 연애·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비율을 살펴보면 연애 76%, 결혼 57%, 출산 41%, 육아 33%로 나타남

□ 케이스탯 조사설계 및 방법 설명

- 케이스탯리서치는 연애·결혼·출산·육아에 대한 2030세대의 일상적인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함
- 각 영역에 해당하는 주요 단어를 제시하고, 해당 단어에 대한 직관적인 긍정/부정 느낌을 조사함
 - 각 단어에 대한 직관적인 긍정/부정 느낌은 일상적인 삶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감정임
 - 논리적이거나 사후적인 가치판단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통해 연애·결혼·출산·육아에 대한 2030세대의 의식을 있는 그대로 살펴볼 수 있음
- 영역별로 제시된 단어와 해당 단어에 대한 ‘긍정 vs 부정’ 느낌 제시어는 다음과 같음

연애	연애 즐겁다 vs 힘들다	선물 기쁘다 vs 부담된다	데이트 시간 기대된다 vs 부담된다	기념일 기대된다 vs 부담된다	커플모임 기대된다 vs 부담된다
결혼	결혼 기대된다 vs 걱정된다	시댁(본가) 좋다 vs 불편하다	신혼집 기대된다 vs 걱정된다	맞벌이 좋다 vs 싫다	명절 좋다 vs 싫다
출산	임신·출산 기대된다 vs 고민된다	아기 기쁘다 vs 힘들다	부모되기 기대된다 vs 부담된다	산후조리 마음편하다 vs 걱정된다	휴직 마음편하다 vs 고민된다
육아	육아 기대된다 vs 부담된다	워킹맘 멋있다 vs 힘들다	어린이집 기대된다 vs 걱정된다	아이 옷 즐겁다 vs 부담된다	자녀교육 기대된다 vs 걱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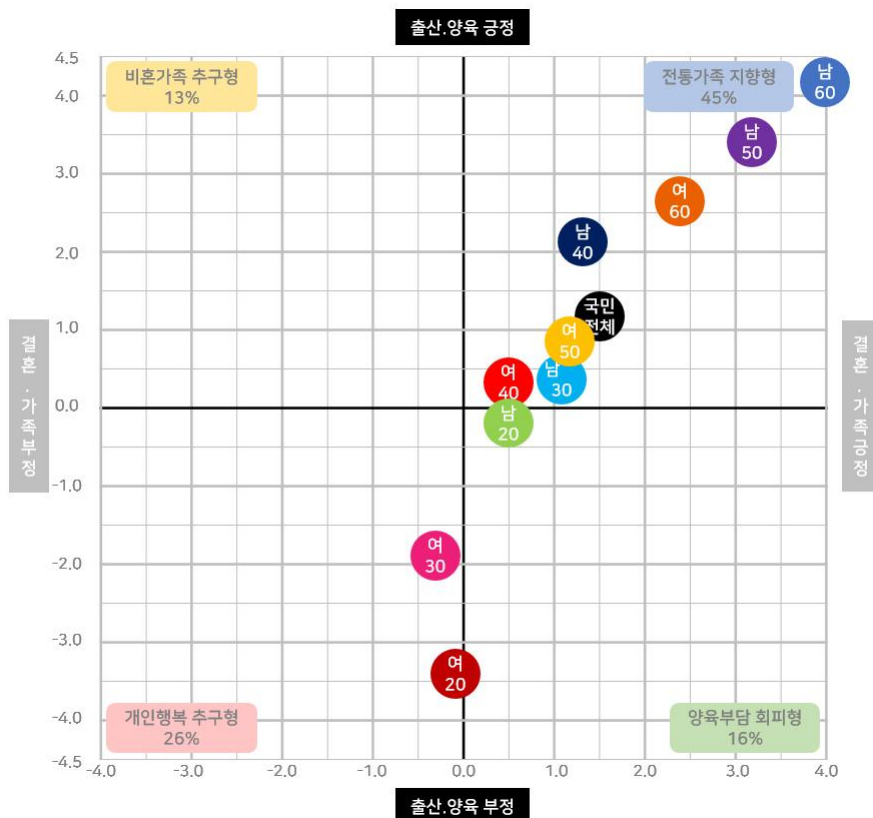
- 설명되어 있는 단어에 대한 ‘긍정 vs 부정’ 느낌 제시어는 미혼 기준이고, 응답자 특성(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느낌의 시제를 달리한 질문지를 별도로 제시해 조사함
- 예, 기혼자 질문지 : ‘연애’ 즐거웠다 vs 힘들었다
- 앞서 4분면 그림에서 보듯 연애와 결혼을 묶어 X축과 Y축으로 삼고, 출산과 육아를 또 하나의 X축과 Y축 삼아 각 응답자의 좌표 값을 구함
 - 영역별 제시 단어는 다섯 개로 동일하고, 긍정 감정은 +1, 부정 감정은 0으로 계산돼 이를 모두 합한 값이 해당 응답자의 좌표 값이 됨
 - 해당 축(영역)에 대한 좌표 값(응답 값)은 최소 0에서 최대 5가 되고, 중간 기준은 2.5로 삼음
 - 즉, 연애 영역에 대한 다섯 개 단어에 모두 부정응답을 하면(긍정응답이 없으면) 좌표 값은 0이 되고, 다섯 개 중 세 개 단어에 긍정응답을 하면 좌표 값은 3임

Kstat Point

- ☑ 케이스탯은 개별 이슈에 대한 응답자 태도는 물론, 그러한 태도를 만들어 내는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 이슈에 대한 응답자 태도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응답자가 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지는 알 수 없음
 - : 이에 케이스탯은 응답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영향 정도를 다양하게 측정해 응답자 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 이번 2030세대 특집 조사의 경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주목하고, “왜, 2030세대는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설계하고 조사함
 - : 이에 따라 연애·결혼·출산·육아에 대한 2030세대의 있는 그대로의 느낌과 감정을 측정하고,
 - : 긍정/부정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지점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결혼과 출산' 관련 기존 케이스탯 조사·분석 안내

- 케이스탯은 2020년 7월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바 있음
 -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결혼·가족의식과 출산·양육의식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좌표 방식을 시험적으로 개발함
- 결혼·가족의식은 X축에 놓고, 출산·양육의식은 Y축에 놓은 후, X축을 이루는 결혼·가족의식 관련 문항을 8개 설계하고, Y축의 출산·양육의식 관련 문항도 동일하게 8개를 설계함
- 조사결과, 4분면에 속하는 인구비중은 다음과 같음
 - ① 결혼·가족 긍정 & 출산·양육 긍정 (전통가족 지향형) : 45%
 - ② 결혼·가족 부정 & 출산·양육 긍정 (비혼가족 추구형) : 13%
 - ③ 결혼·가족 부정 & 출산·양육 부정 (개인행복 추구형) : 26%
 - ④ 결혼·가족 긍정 & 출산·양육 부정 (양육부담 회피형) : 16%
- 아래 그림은 성/연령별 평균 좌표로,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가족 및 출산·양육에 부정적인 방향, 즉 대각선 방향으로 하향하는 양상임
- 또한 남녀 간의 차이에 따라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좌표 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 남자 60대와 여자 60대 간에도 좌표 위치에 차이가 있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여자들은 결혼·가족 및 출산·양육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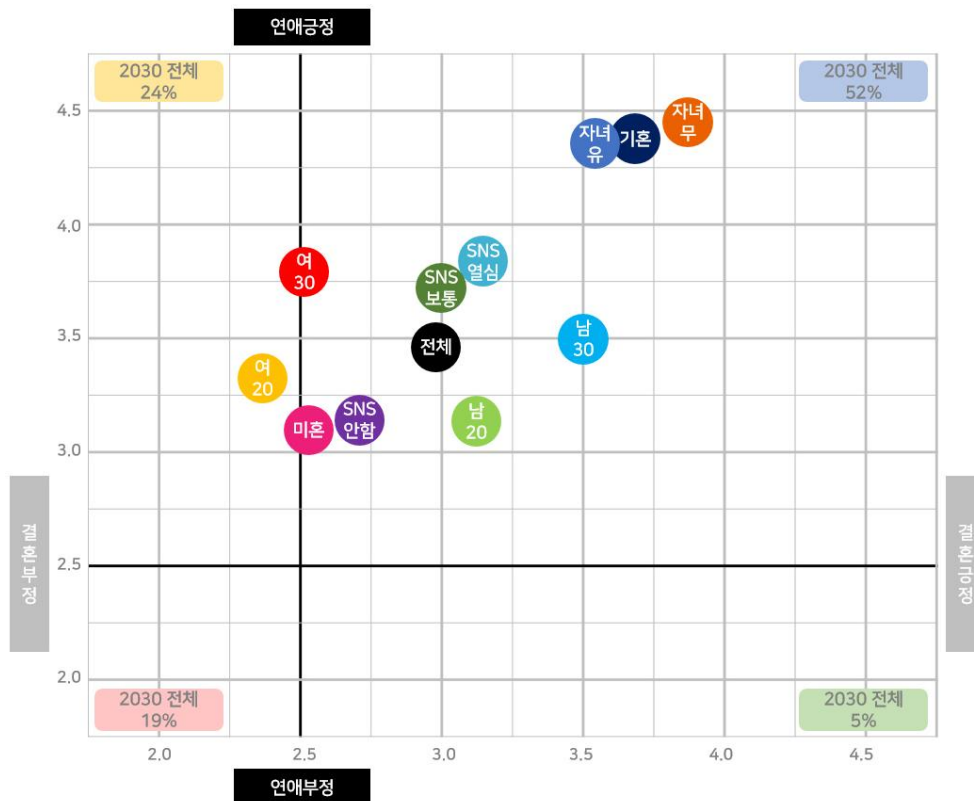


- 지난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9호 『'결혼과 출산' 한국인 가치관 분석』 참고

연애와 결혼의식 분석

남성과 여성 간 거리, 연애보다 결혼에서 멀어져

- 연애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계층마다 다름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 30대는 결혼에 가장 긍정적인데 비해, 여자 20대는 결혼에 가장 부정적임
 - 남자 30대 다음으로 남자 20대, 여자 30대 순으로 결혼에 긍정적임
 - 다만, 여자 30대의 경우 긍정과 부정의 경계선에서 미세하게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수준에 그침
- 기혼과 미혼은 연애와 결혼 모두에서 거리가 멀고, 기혼자의 자녀 유/무는 차이가 없음
- 한편, SNS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보통으로 하는 계층일수록 연애와 결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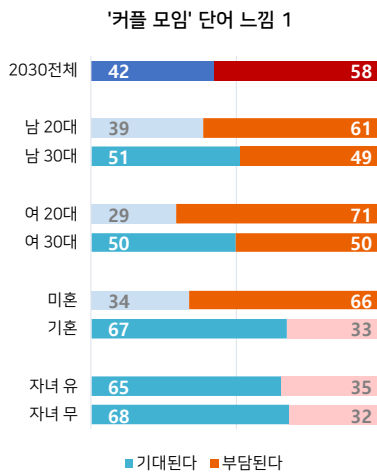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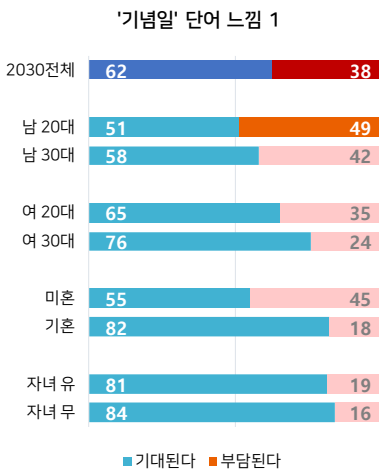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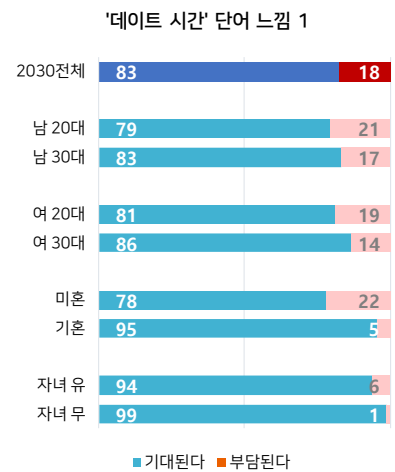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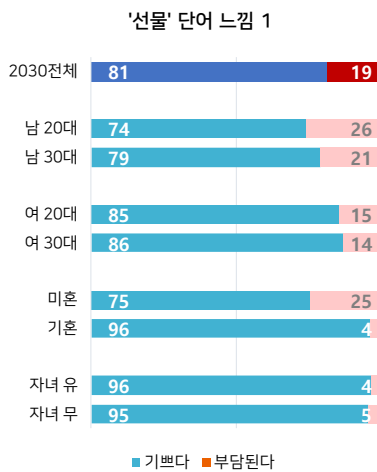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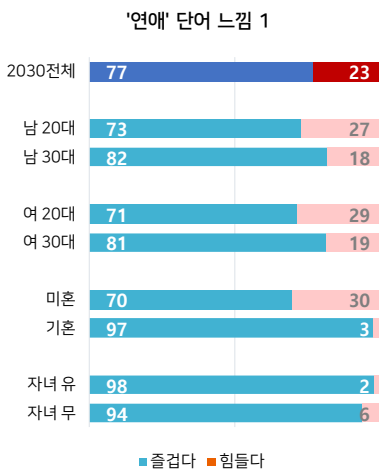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는 남녀 모두 연애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남녀 간 생각의 차이가 두드러짐
 - : 남자 2030세대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여자 2030세대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임
- ☑ 성/소득별 좌표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연애와 결혼에 부정적 태도를 취함
 - : 특히 여자 100만원 미만, 여자 100~3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은 결혼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 여자 3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은 결혼에 다소 긍정적이지만, 남자 100만원 미만보다 낮을 정도로 소극적임
- ☑ 결혼은 출산과 육아로 건너가는 큰 다리인데, 결혼에 대한 여성층의 부정적 생각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애 관련 단어, '커플 모임' 단어만 부정 느낌 높아

- 연애에 관련된 단어로 '연애', '선물', '데이트 시간', '기념일', '커플 모임' 등 다섯 개가 제시됨
- 이 중 '연애', '선물', '데이트 시간'은 모든 계층에서 높은 비중의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기념일'의 경우 여성은 긍정적인 비중이 높은 데 비해, 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특히 20대 남성층의 경우 긍정 느낌(기대된다)과 부정 느낌(부담된다)이 각각 51%, 49%로 비슷함
- '커플모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 느낌이 높게 나타남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남녀는 모두 부정 느낌이 높고, 30대 남녀 역시 긍정/부정이 팽팽함
 - 기혼자의 경우 커플 모임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미혼자는 부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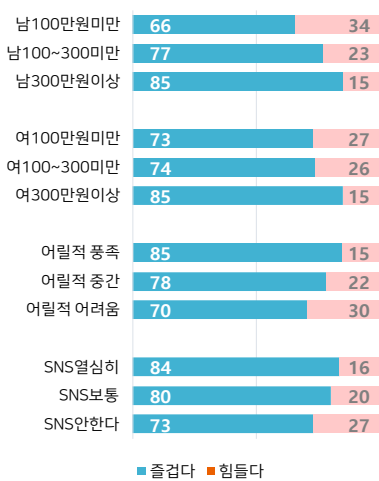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는 연애 관련 단어에 대해 대부분 긍정 느낌을 표했지만(연애, 선물, 데이트 시간), 둘 사이를 벗어난 '커플 모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커플 모임 참석 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분석됨
- ☑ '기념일' 단어에 대해 여성층은 긍정 비중이 높은 데 비해, 남성층은 상대적으로 부정 비중이 높음
 - : 이는 기념일을 맞아 이벤트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남성층이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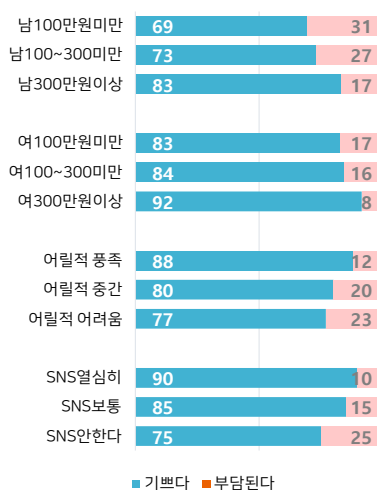
□ 연애에 미치는 소득 요인, 크지 않아

- 연애 관련 단어 느낌을 성/소득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어에서 소득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애, 선물, 데이트 시간 등에 대한 느낌은 성/소득과 무관하게 거의 긍정적임
- 다만, ‘커플 모임’ 단어에 대해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정 느낌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또한 ‘커플 모임’에 대한 긍정/부정 느낌에 있어 어렸을 때 가정 경제상황과 SNS 활동정도에 따라서도 긍정/부정 느낌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어렸을 때 가정환경이 풍족할수록, SNS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기대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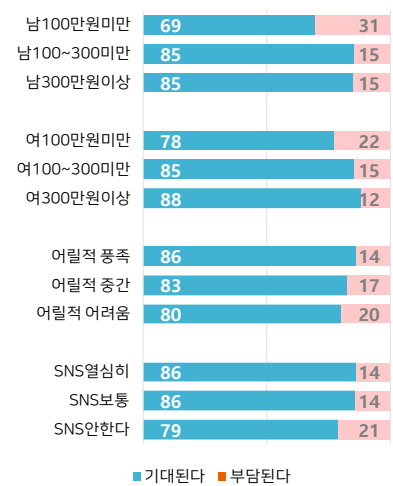
'연애' 단어 느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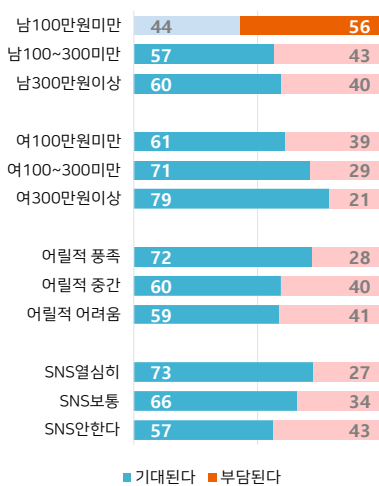
'선물' 단어 느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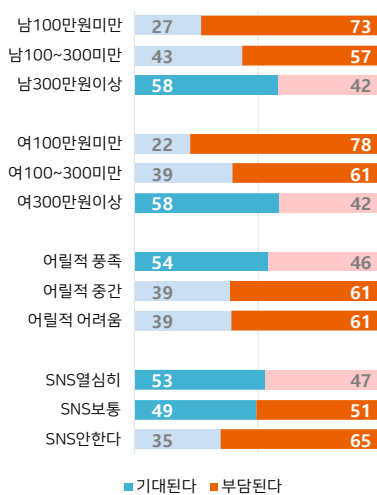
'데이트 시간' 단어 느낌 2



'기념일' 단어 느낌 2



'커플 모임' 단어 느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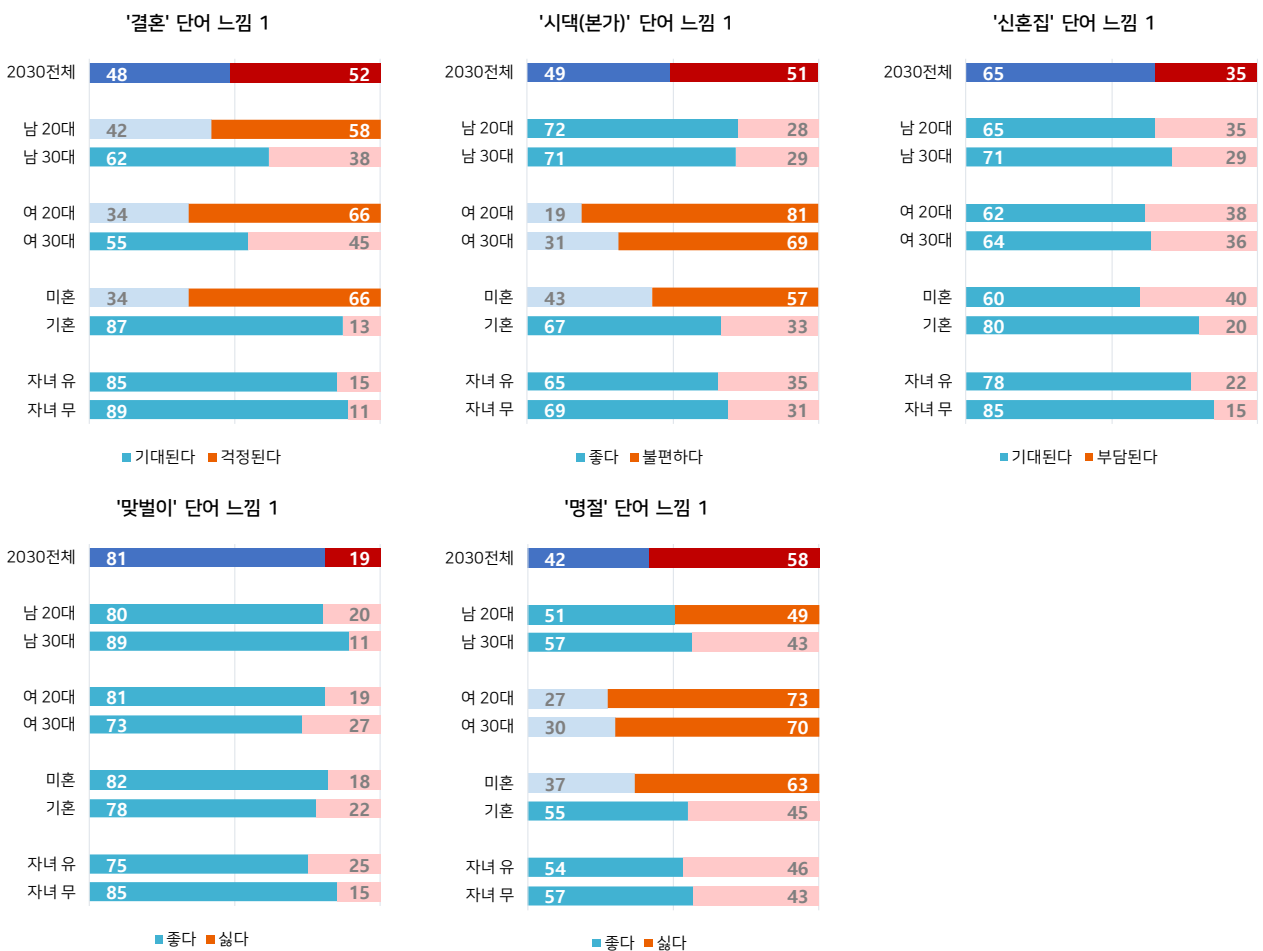


Kstat Point

- ☑ '연애'에 대한 느낌은 소득과 큰 영향이 없어, 2030세대 모두가 비교적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 다만, '커플 모임'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과의 비교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스럽게 생각함

□ 결혼 관련 단어, '명절' 비롯 부정 느낌 단어 많아져

- 결혼 관련 단어로 '결혼', '시댁(본가)', '신혼집', '맞벌이', '명절' 등 다섯 개가 제시됨
- 이 중 긍정 느낌이 높은 단어는 신혼집, 맞벌이 두 개임
 - 2030세대 전체는 물론 모든 계층에서 긍정 느낌이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결혼, 시댁(본가), 명절 등 세 개 단어는 부정 느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긍정/부정 느낌이 대별되는 계층은 단어에 따라 다름
- 결혼 단어에 대해서는 연령별 차이가 크고(20대의 '걱정된다' 느낌 우세), 시댁(본가)과 명절은 남녀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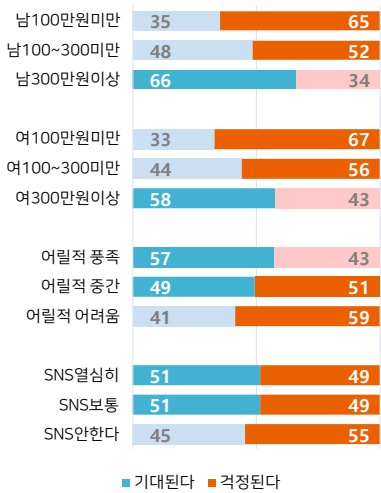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들은 '연애'를 지나 '결혼'이라는 다리가 보이는 순간, 다양한 이유로 부정적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 20대는 남녀 모두 '결혼'이라는 단어에 대해 '걱정된다'고 생각하고, 여성은 '시댁'과 '명절'이라는 단어 앞에서 불편함과 싫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음
 - : 가부장적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사회 현실이 '결혼'에 대한 여성층의 부정 느낌을 촉발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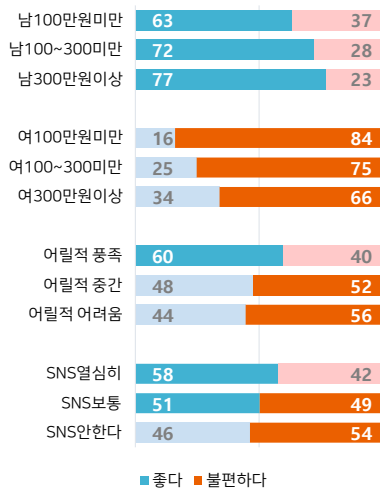
□ 결혼 단어 자체, 소득에 따라 느낌 매우 달라

- 결혼 관련 다양한 단어 중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소득별 느낌이 매우 다른 것으로 조사됨
 - 남녀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걱정된다’는 부정 느낌이 높아짐
- 시대와 명절에 대한 느낌은 남녀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명절의 경우 남성들도 소득이 낮을수록 ‘싫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어렸을 때 가정 경제상황이 풍족했다’는 계층의 경우 모든 단어에 걸쳐 긍정 느낌이 높은 것이 특징적임
 - 이들 계층은 전체적으로 부정 느낌이 높은 시대(본가)과 명절 단어에 대해서도 긍정 느낌이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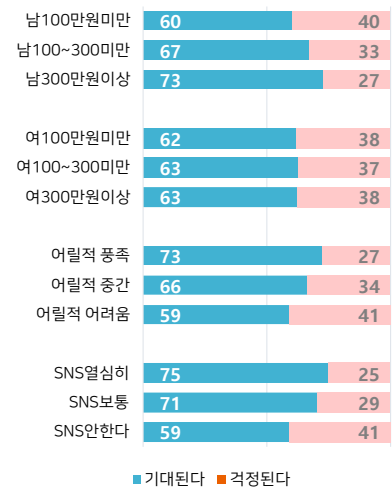
'결혼' 단어 느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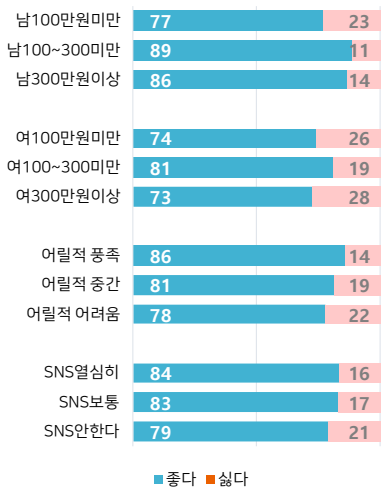
'시대(본가)' 단어 느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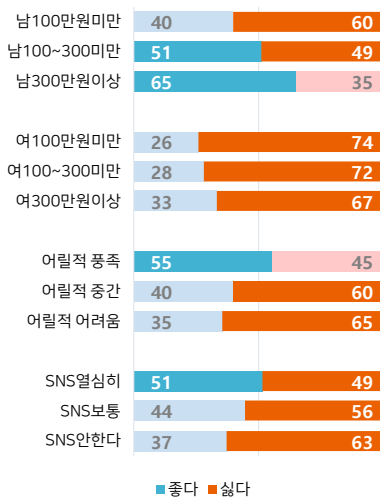
'신혼집' 단어 느낌 2



'맞벌이' 단어 느낌 2



'명절' 단어 느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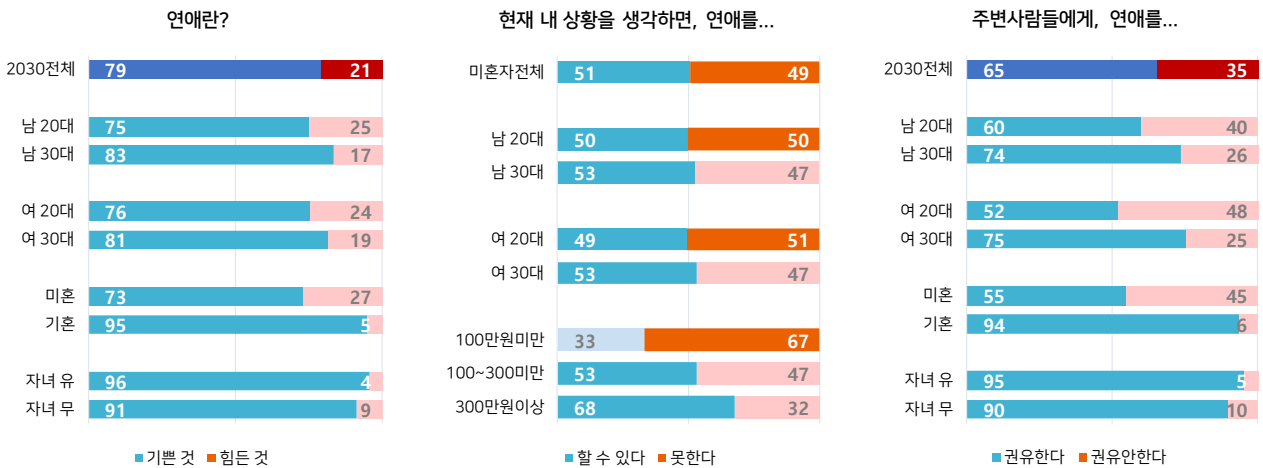


Kstat Point

- ☑ '결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소득에 따라 긍정/부정 느낌이 매우 달라지는데, 이는 결혼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결혼식, 예물, 신혼여행, 집들이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추가 조사 : 연애, 내 상황 생각하면 쉽지 않아

- 연애 관련 단어에 대한 느낌 외에 추가적으로 연애에 가치 판단, 현재 가능성, 주변 권유 여부 등을 조사함
- 조사결과 연애에 대해서는 ‘기쁜 것’이라는 긍정 평가를 하면서도, 현실을 생각하면 ‘할 수 있다’와 ‘못한다’가 팽팽하게 대립함
- 먼저 ‘연애란?’이라는 가치판단 질문에 2030세대 전체는 ‘기쁜 것’이라는 응답이 79%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미혼자만을 대상으로 ‘현재 내 상황을 생각하면, 연애를...’이라는 질문을 한 결과 ‘할 수 있다’ 51% vs ‘못한다’ 49%로 비슷한 응답을 보임
 - 성/연령별 모두 ‘할 수 있다’와 ‘못한다’는 의견이 매우 팽팽함
 -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애의 주변사람들 권유 여부에 대해서는 ‘권유한다’는 의견이 65%로 높게 조사됨
 - 모든 계층에서 ‘권유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여자 20대의 경우 ‘권유한다’와 ‘권유 안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각각 52%,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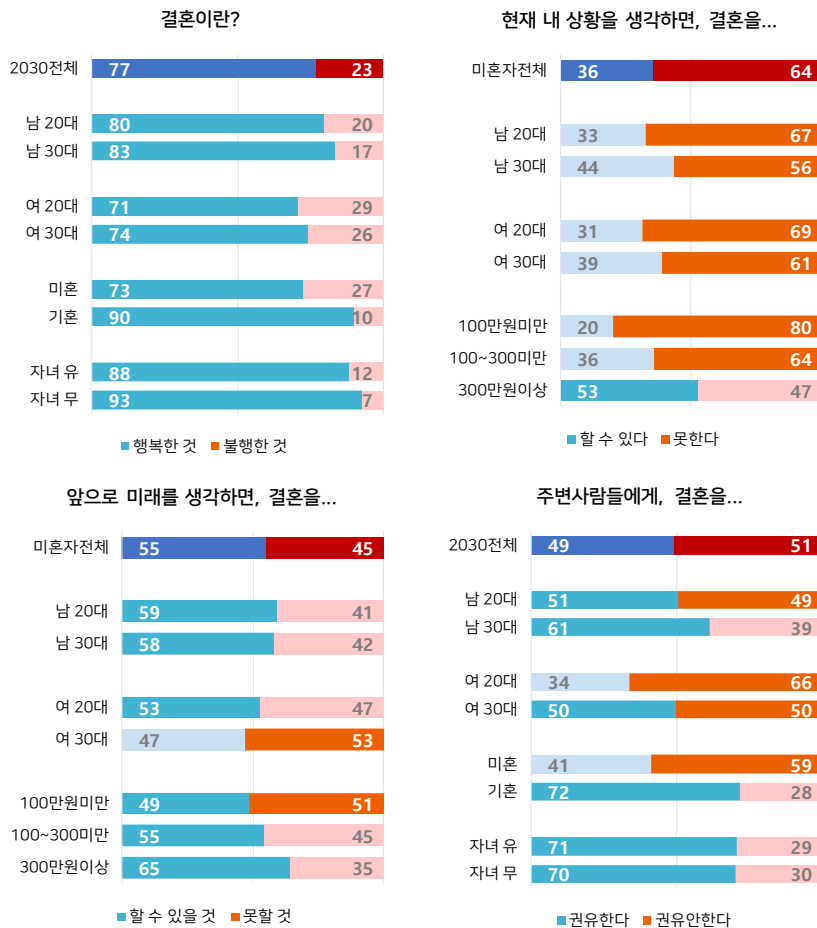


Kstat Point

- ☑ 연애에 대한 2030세대의 생각은 ‘기쁜 것’이지만, 현재 내가 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권유하겠다’로 요약됨
 - : 연애 자체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생각은 앞서 연애 관련 단어에 대한 긍정 느낌과 맥을 같이 함
- ☑ 현재 내 상황을 생각할 때 ‘할 수 있다’와 ‘못한다’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득 요인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소득이 높을수록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뚜렷하게 높아짐

□ 추가 조사 : 결혼, '행복한 것'이지만 현실은 어렵다

- 추가적으로 '결혼이란?'이라는 가치판단 질문 결과 '행복한 것'이라는 응답이 77%로 높게 나타남
- 미혼자만을 대상으로 '현재 내 상황을 생각하면, 결혼을...'이라는 질문을 한 결과 '못한다'는 응답이 64%로 높게 나타남
 - 성/연령별 모두 '못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소득별로는 300만원 이상 계층만 '할 수 있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나 이 역시 격차가 크지 않음('할 수 있다' 53% vs '못한다' 47%)
-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55%로 우세함
- 결혼을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권유한다' 49%, '권유 안한다' 51%로 팽팽함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일하게 남자 30대만 '권유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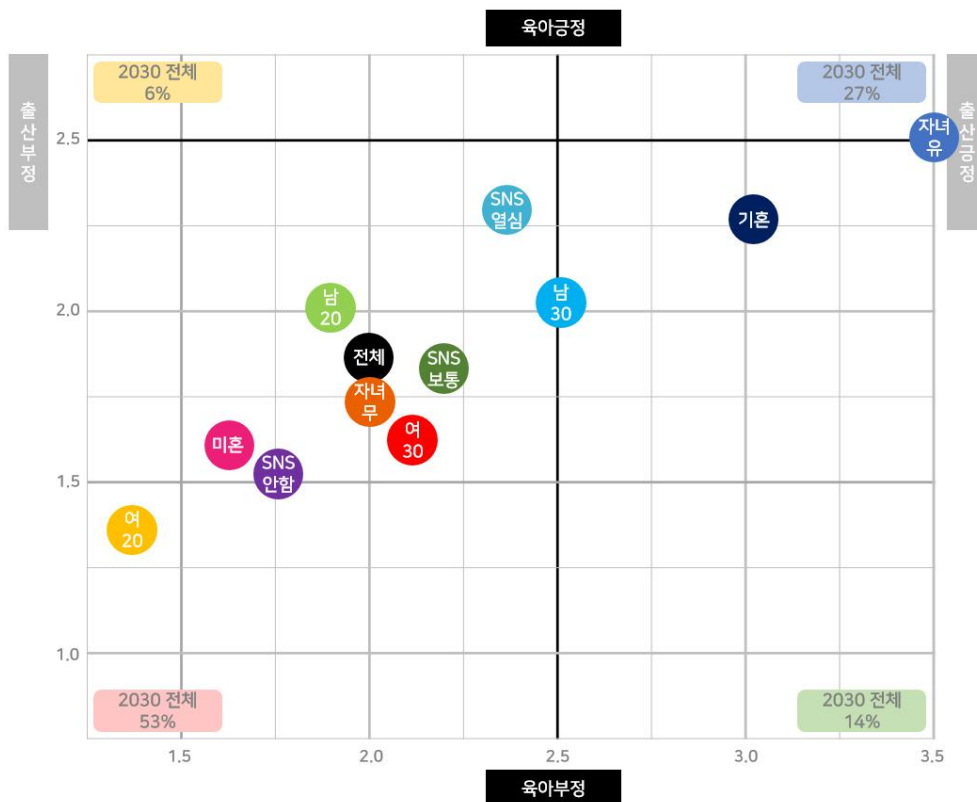
Kstat Point

- ☑ 결혼은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내 상황을 생각하면 '못한다'는 것이 2030세대가 당면한 현실임
: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결혼 가능성이 다소 올라가지만 여전히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혼 권유를 강력하게 하지 않음
- ☑ 2030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 즉 '행복한 것'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우리사회 현실에 있다는 지적임

출산과 육아의식 분석

자녀 있는 계층과 다른 계층 간 거리 멀어

- 2030세대는 출산과 육아 모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볼 때 자녀가 있는 계층과 그 외 계층 간 거리가 먼 상황임
 - 자녀가 있는 계층만 유일하게 출산에 대해 긍정적이고, 육아에 대해서도 중간 위치에 있음
- 다음으로는 기혼과 미혼 간 거리가 멀고, 같은 연령대의 남녀 간 거리가 멀
 - 기혼은 출산에 긍정적이던데 비해 미혼은 부정적임
 - 같은 연령대의 남녀를 비교하면, 출산과 육아 모두에서 거리가 존재함
- 한편, SNS 활동여부를 살펴보면, SNS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출산과 육아에 긍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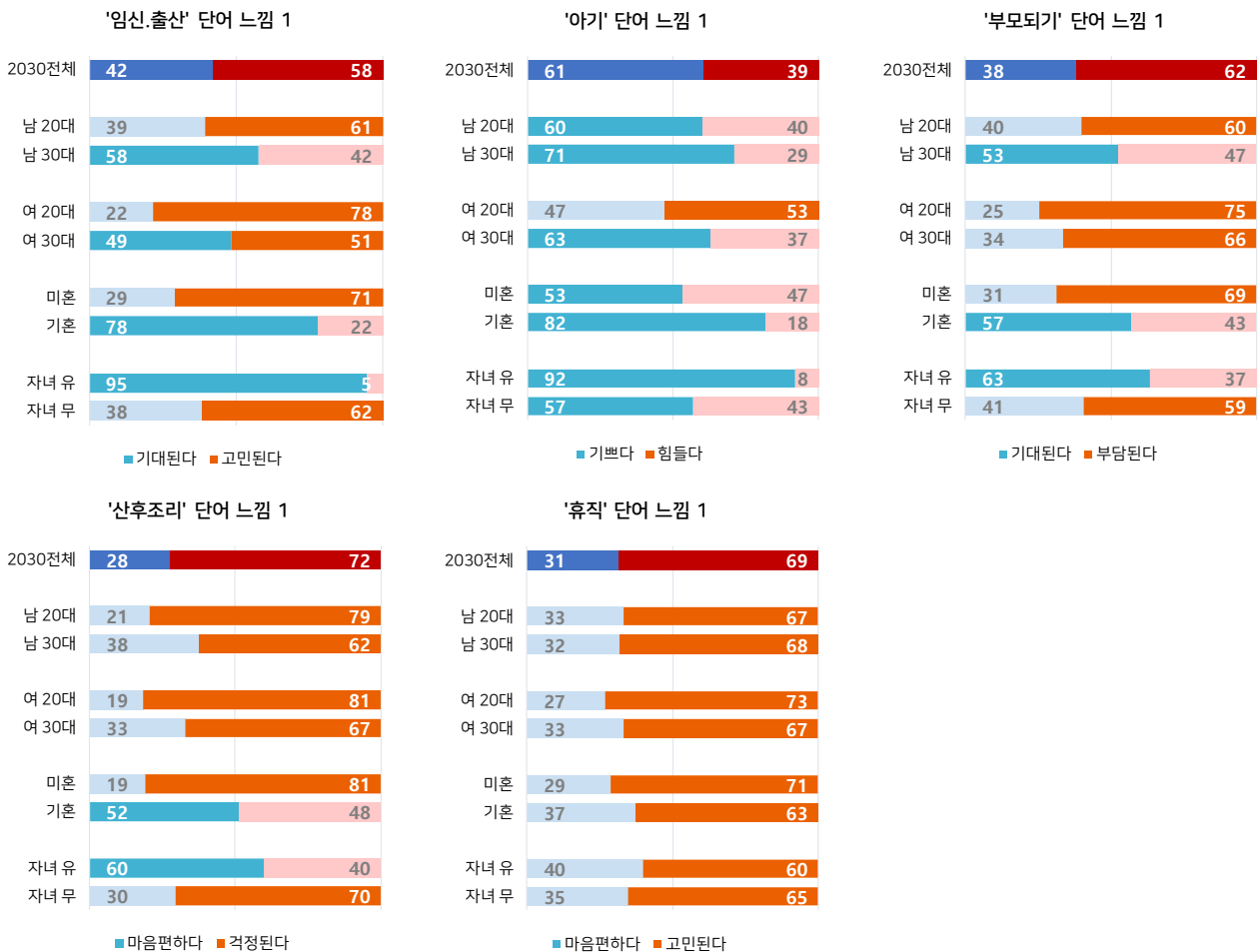


Kstat Point

- ☑ 출산과 육아에 대한 2030세대 전체 좌표 값은 출산 부정 & 육아 부정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의 계층이 이 부문에 위치해 있음
 - : 즉, 2030세대 거의 대부분이 출산과 육아에 부정적이라는 의미임
- ☑ 이러한 흐름에 벗어나 있는 유일한 계층은 '자녀 있는 계층'이고, '자녀 있는 계층'과 다른 계층 간의 차이가 두드러짐
 - : 기혼자 중에서도 자녀 있는 층과 자녀 없는 층과의 거리가 멀어 기혼자로 묶어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출산 관련 단어, '아기'만 유일하게 긍정 느낌

- 출산과 관련된 단어로 '임신·출산', '아기', '부모되기', '산후조리', '휴직' 등 다섯 개가 제시됨
- 이 중 '아기'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사람이 우세하고, 다른 단어들은 모두 부정적인 느낌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 '아기' 단어는 긍정 느낌(기쁘다)이 61%이고, 부정 느낌(힘들다)은 39%임
- '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임신·출산'과 '부모되기'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 30대만 긍정 느낌이 소폭 우세하고, 다른 계층은 부정 느낌이 우세함
 - 기혼자는 모두 긍정 느낌이 우세하지만 자녀 유무에 따라 긍정 느낌의 강도가 달라짐
- 또한 '산후조리'와 '휴직'에 대해서는 부정 느낌이 매우 높았음
 - 특히 '휴직'의 경우 모든 계층에서 부정 느낌이 높은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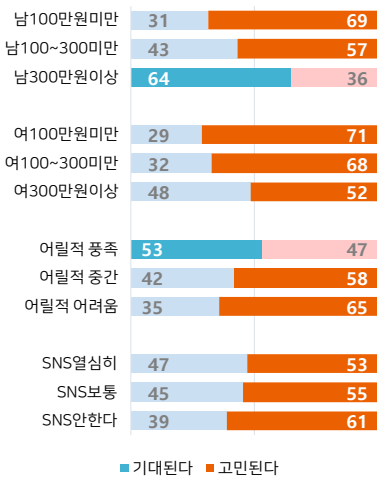
Kstat Point

- ☑ 출산과 관련된 단어 중 '아기'만 유일하게 긍정 느낌이 우세할 뿐 다른 모든 단어는 부정 느낌이 우세하다는 것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회환경이 충분치 않다는 현실의 반증으로 분석됨
 - : 특히 여자 20대와 미혼층에서 불만이 강하게 나타나, 당사자로서의 고민이 큰 것으로 보임
- ☑ 기혼자 중 자녀가 없는 계층도 부정 느낌이 높은 것을 볼 때, 정부의 출산 지원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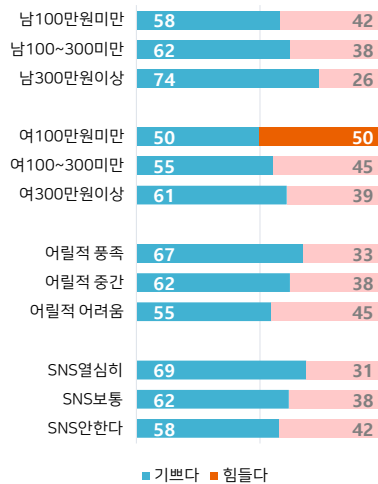
□ 출산 관련 단어 느낌, 소득 연관성 낮아

- 출산과 관련된 단어들에 대한 성/소득별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그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모든 단어에 걸쳐, 성/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
 - 남자 300만원 이상 소득층은 '임신·출산'과 '부모되기' 단어에 긍정적이라는 점 외에 특별한 차이가 없음
- 한편, 어렸을 때 가정 경제상황과 SNS 활동별로도 큰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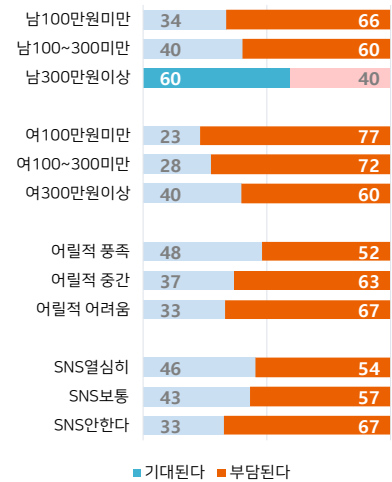
'임신·출산' 단어 느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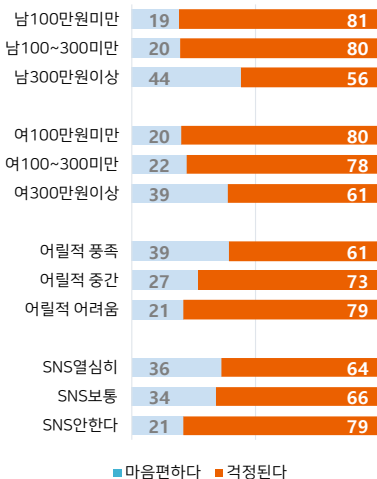
'아기' 단어 느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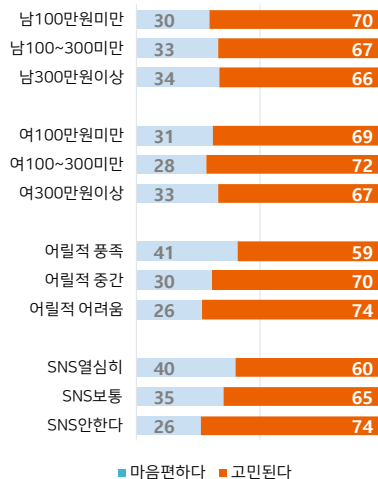
'부모되기' 단어 느낌 2



'산후조리' 단어 느낌 2



'휴직' 단어 느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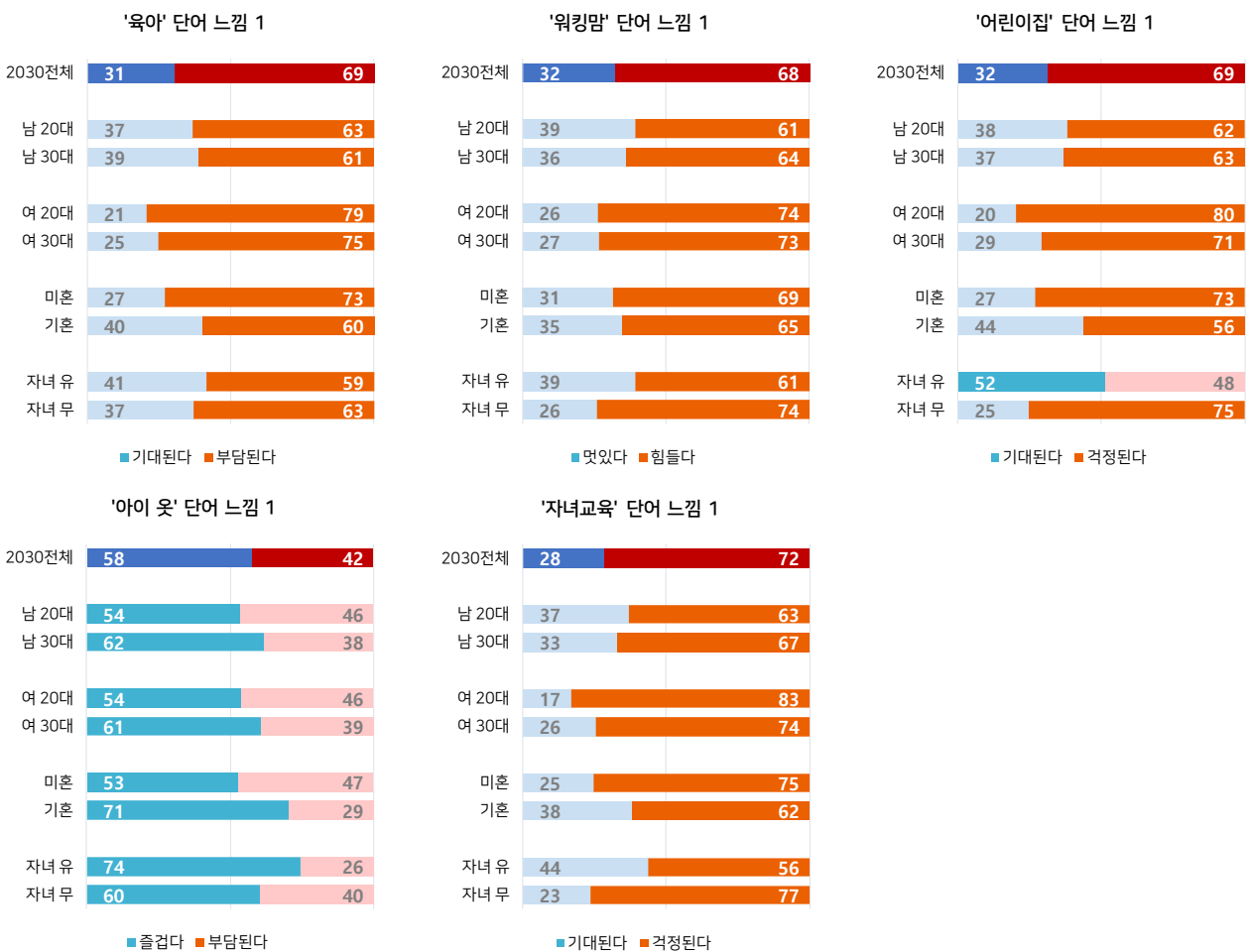


Kstat Point

- ☑ 출산에 대한 느낌에 있어 소득 요인은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정부·지자체의 출산 지원정책이 주로 '금전적 지원'에 맞춰져 있는 것은 문제로 보임
 - : '애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는 식의 지원정책은 2030세대의 생각과 거리가 먼 정책임
- ☑ 2030세대가 생각하는 출산을 가로막는 사회환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임
 - : 예를 들어, 본 조사에서 다룬 '산후조리'가 걱정되는 이유를 해소하는 정책만으로도 전부는 아니지만 다소간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육아 단어, '아이 옷'만 긍정 느낌

- 육아 연관 단어로는 '육아', '워킹맘', '어린이집', '아이 옷', '자녀교육' 등 다섯 개를 제시함
- 이 중 '아이 옷'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응답이 우세하고, 다른 단어들은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함
 - '아이 옷' 단어는 긍정 느낌(즐겁다)이 58%이고, 부정 느낌(부담된다)은 42%로 조사됨
- 그 외 '육아', '워킹맘', '어린이집', '자녀교육' 등은 모두 부정 느낌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부정 느낌이 우세한 흐름은 모든 계층에서 일관된 흐름이고, 계층간 차이가 크지 않음
 - 성/연령별로 살펴보더라도 남자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부정 느낌이 더 높지만 그 차이는 작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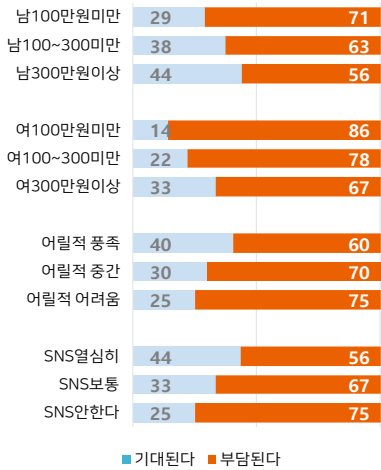
Kstat Point

- ☑ 기혼자 중 자녀가 있는 계층의 경우 앞서 출산 관련 단어에서는 거의 모든 단어에서 긍정 느낌이 우세했지만, 육아 관련 단어에서는 거의 모든 단어에서 부정 느낌이 우세함
 - : 즉, 기혼자 중 자녀가 있는 계층이 출산에 대해서 긍정 느낌을 갖지만, 아이를 키우는 육아 단계에 들어서면 부정 느낌이 우세해진다는 것임
- ☑ 자녀가 있는 계층에서도 육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다른 계층의 출산과 육아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임
 - :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이 힘들고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미혼 2030세대와 기혼자 중 자녀 없는 사람들이 보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 느낌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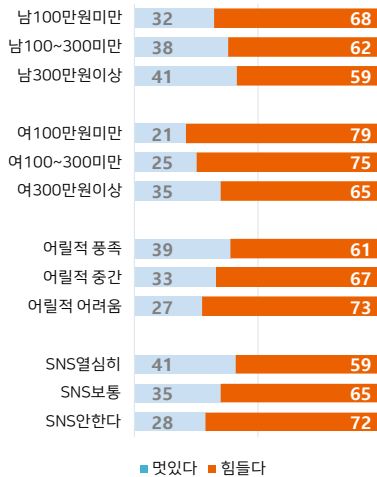
□ 육아에 대한 단어 느낌 역시 소득 요인 낮아

- 육아와 관련된 단어들에 느낌을 성/소득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
 - 모든 단어에 걸쳐,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 느낌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부정 느낌 우세 상황은 같음
 - 남녀간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출산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가정 경제상황과 SNS 활동별로도 큰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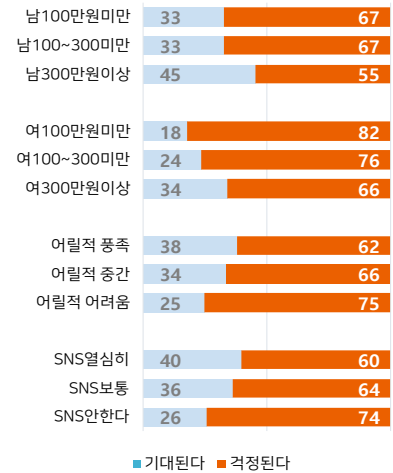
'육아' 단어 느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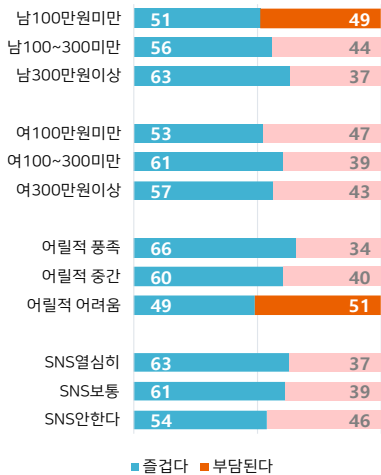
'워킹맘' 단어 느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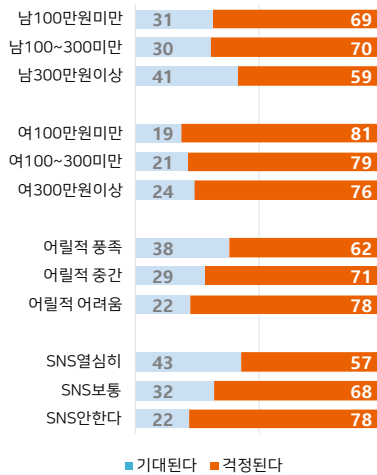
'어린이집' 단어 느낌 2



'아이 옷' 단어 느낌 2



'자녀교육' 단어 느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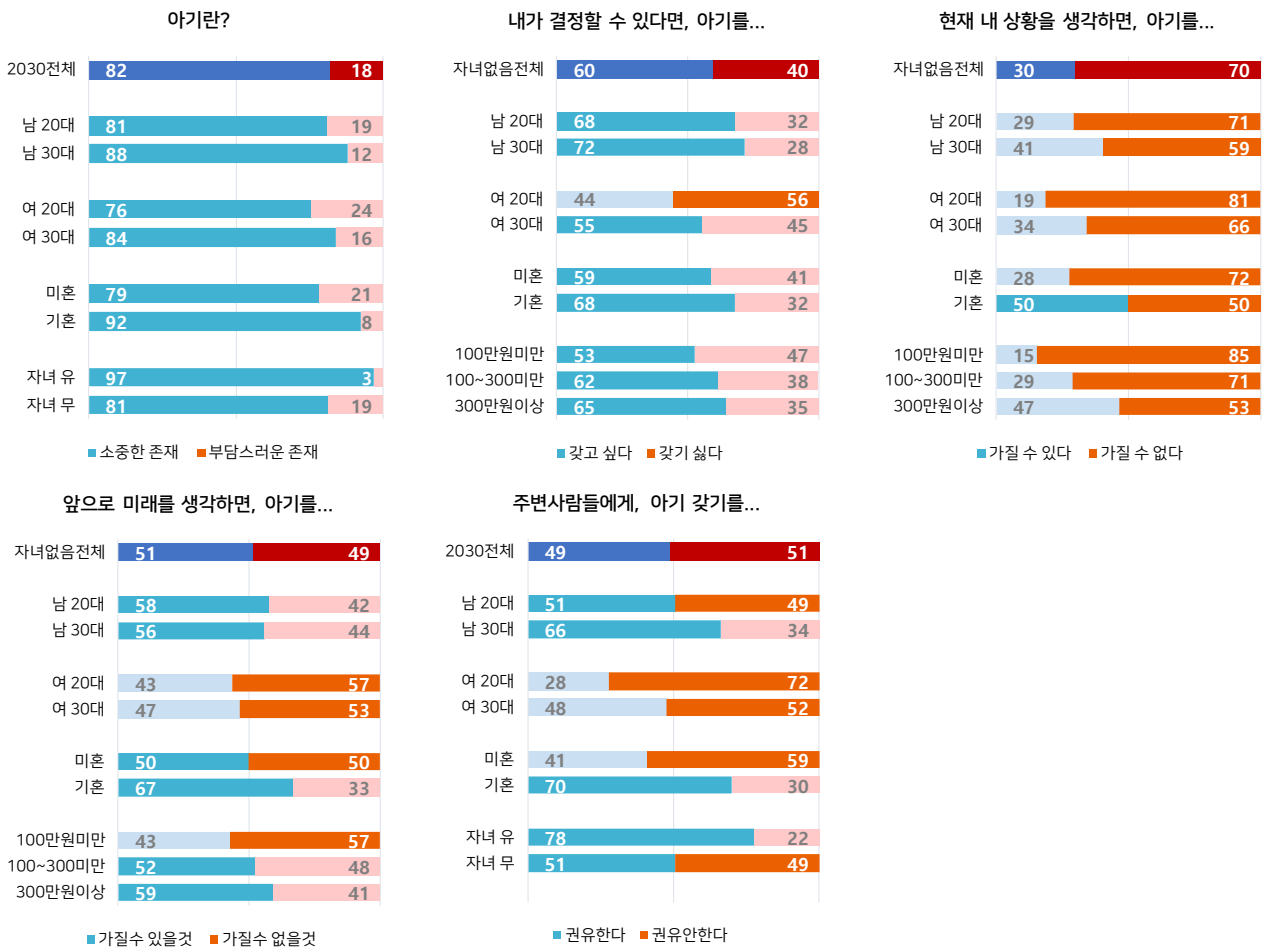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출산에 이어 육아 관련 단어 느낌에서도 소득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의 정부·지자체 출산·육아 정책이 주로 '금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2030세대가 원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것임
- ☑ 특히 자녀가 있는 계층이 부담없이 즐겁게 아이를 키우는 육아정책을 특별히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육아에 대한 긍정적 모델이 만들어지고, 2030세대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을 때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 느낌이 확산될 수 있을 것임

□ 추가 조사 : 아기, 소중한 존재고 '갖고 싶다' 높아

- 출산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아기'에 대한 생각을 조사했는데, 먼저 '아이란?'이라는 가치판단 질문에 '소중한 존재'라는 응답이 8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자녀없음(미혼포함) 응답자를 대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아기를...'이라는 질문을 한 결과 '갖고 싶다' 60% vs '갖기 싫다' 40%로 조사됨
 - 여자 20대 계층만 '갖기 싫다'는 응답이 56%로 우세함
- 역시 자녀없음(미혼포함) 전체에게 '현재 내 상황을 생각하면, 아기를...'이라고 물은 결과 '가질 수 있다' 응답이 30%에 그침
-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1%이고, '가질 수 없을 것'은 49%로 팽팽하게 맞섬
- 주변사람들에게 아기 갖기 권유 질문 결과 '권유한다' 49% vs '권유 안한다' 51%로 의견이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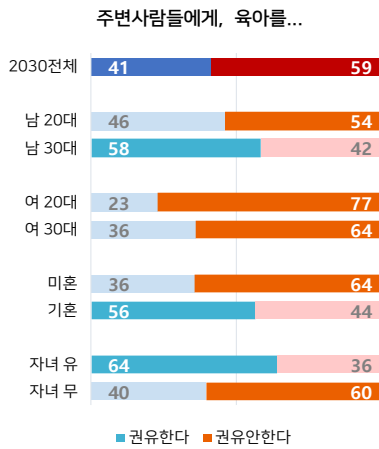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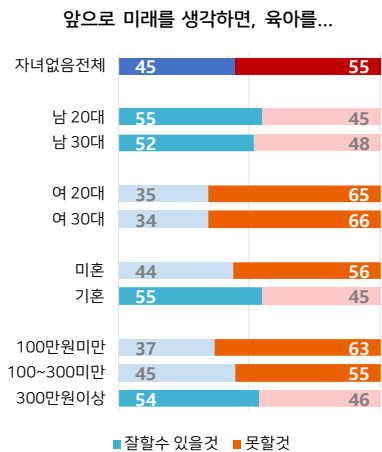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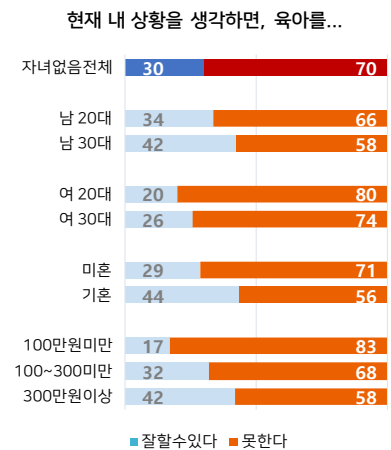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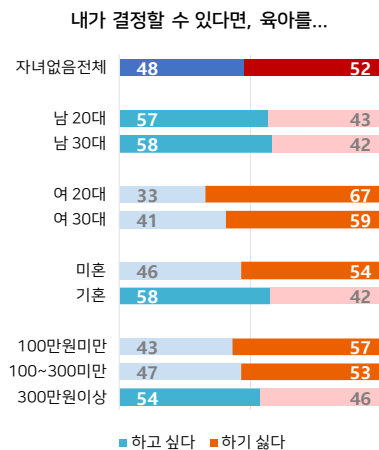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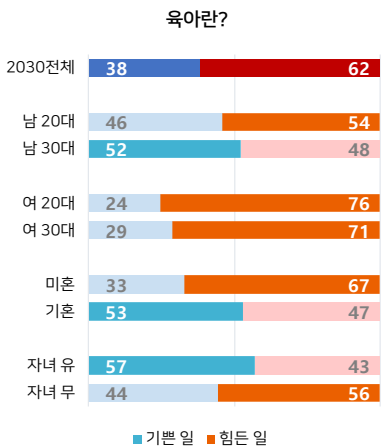


Kstat Point

☑ 출산의 핵심인 '아기'에 대해 2030세대들은 소중한 존재이고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가질 수 없다고 응답하는데, 지금의 2030세대들을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감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추가 조사 : 육아는 힘든 일이고, 권유 않는다

- ‘육아란?’이라는 가치판단 질문에 ‘힘든 일’이라는 응답이 62%로 ‘기쁜 일’(38%)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큰 차이로 ‘힘든 일’이라고 응답함
- 자녀없음(미혼포함) 응답자를 대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육아를...’이라는 질문을 한 결과 ‘하고 싶다’ 48% vs ‘하기 싫다’ 52%로 의견이 팽팽히 맞섬
 - 남자는 ‘하고 싶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여자는 ‘하기 싫다’는 응답이 우세함
- 또한 자녀없음(미혼포함) 응답자에게 ‘현재 내 상황을 생각하면, 육아를...’이라고 묻은 결과 ‘못한다’는 응답이 70%로 높게 나타남
-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육아를...’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5%로 우세함
- 주변사람들에게 육아를 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유 안한다’는 의견이 59%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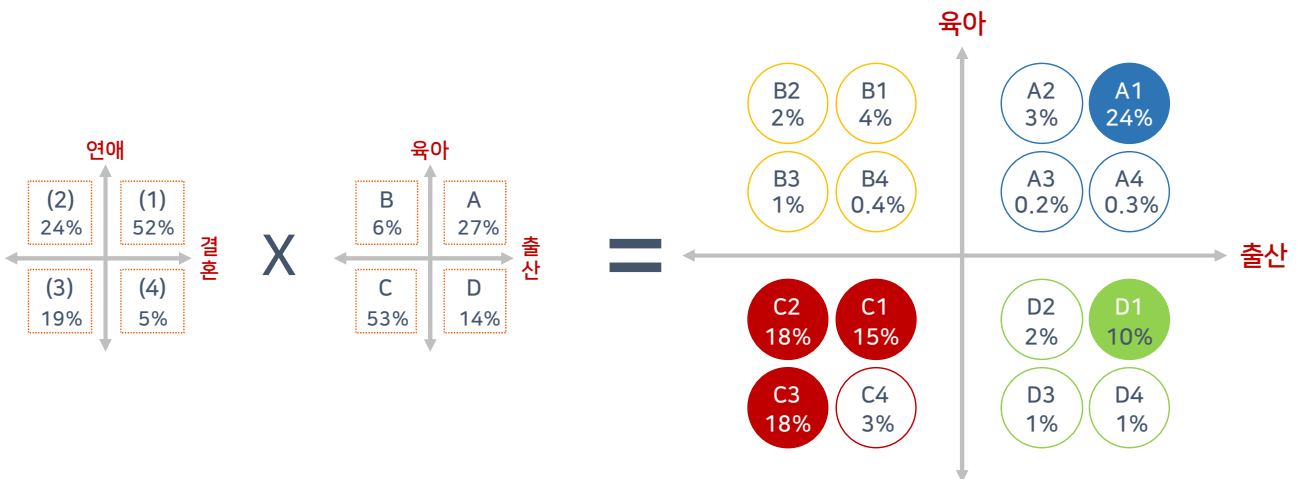
Kstat Point

- ☑ 육아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남성층은 긍정적이고, 여성층은 부정적인 특징을 나타냄 : 이러한 배경에는 ‘독박 육아’라는 말처럼 여성만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여성 개인에게 온전히 안기고 있는 지금의 가정·사회환경이 변할 때, 비로써 저출산 문제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지적임

연애와 결혼, 출산과 육아의식 종합 분석

연애·결혼 좌표와 육아·출산 좌표의 종합 결과

- 연애·결혼·육아·출산과 관련된 단어에 대한 느낌을 좌표화 한 결과는 아래 좌측 그림과 같음
 - 분면 아래 숫자는 해당 분면에 속한 비중(%)을 의미함
- 먼저 연애·결혼에 대한 4분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연애·결혼 긍정 : 52%
 - ② 연애긍정, 결혼부정 : 24%
 - ③ 연애·결혼 부정 : 19%
 - ④ 연애부정, 결혼긍정 : 5%
- 출산과 육아에 대한 4분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A. 출산·육아 긍정 : 27%
 - B. 출산부정, 육아긍정 : 6%
 - C. 출산·육아 부정 : 53%
 - D. 출산긍정, 육아부정 : 14%
- 연애와 결혼 좌표와 육아와 출산 좌표를 종합한 결과가 아래 우측 그림임
 - A1, A2 등의 아래 숫자는 해당 분면의 비중(%)임



- 종합분석 결과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온 유형은 다음과 같음
 - A1 : 24% (모두 긍정)
 - C1 : 15% (출산·육아 부정) C2 : 18% (결혼·출산·육아 부정) C3 : 18% (모두 부정)
 - D1 : 10% (육아만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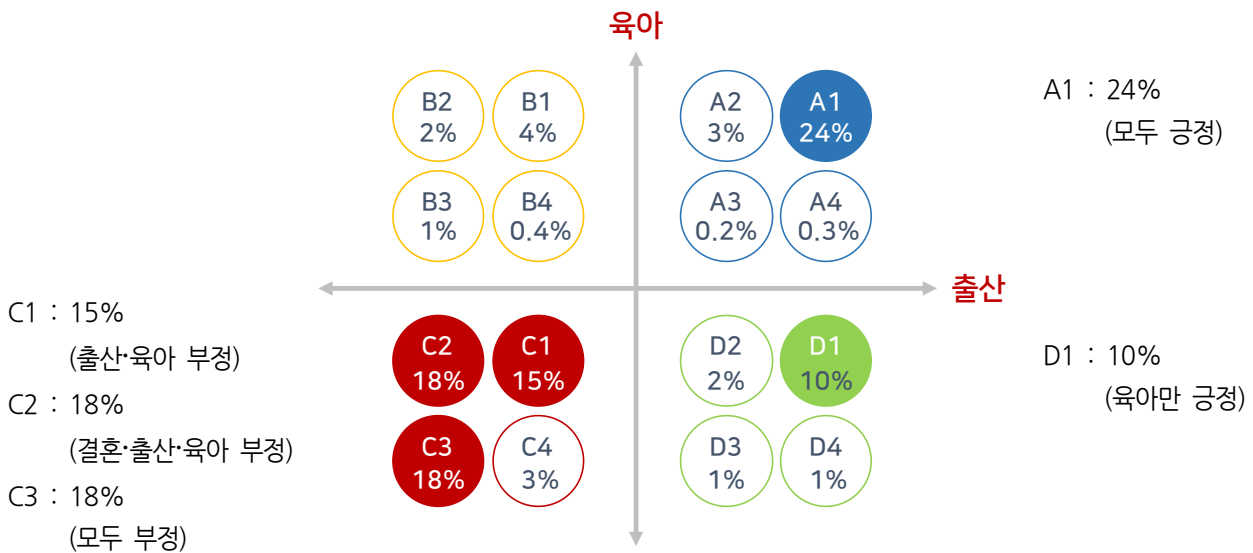
Kstat Point

- ☑ 연애·결혼 좌표와 육아·출산 좌표를 종합한 이유는 2030세대의 의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임
- ☑ 이에 A1이 가장 많고(모두 긍정), 이에 대립되는 부정 축으로 C1, C2, C3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 ☑ 한편, D1(육아만 긍정)이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비중을 나타냄

□ 주요 분면에 대한 인구특성 분석 결과

- 주요 분면 5개에 대한 다항 로짓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내용을 발견함

핵심 요인	속할 확률	속하지 않을 확률
여성	여성은 C2에 속할 확률 가장 높음	여성은 A1에 속할 확률 가장 낮음
부모관계 좋음	부모관계가 좋으면 A1에 속할 확률 가장 높음	부모관계가 좋으면 C3에 속할 확률 가장 낮음
어릴 때 풍족	어릴 때 풍족하면 A1에 속할 확률 가장 높음	-
개인 소득	개인 소득 높을수록 A1에 속할 확률 높은 편	-
진보층	-	진보층은 A1에 속할 확률 낮은 편
SNS 열심히	SNS 열심히는 A1에 속할 확률 높은 편	-
삶, 불안층	-	불안을 느낄수록 A1에 속할 확률 낮은 편



Kstat Point

- ☑ 이번의 '2030세대 특집 조사'는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외에 다양한 배경질문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분석기간 및 보고서 작업 기간 등의 한계로 일부 내용만 수록하게 됨
- ☑ 위 다항 로짓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작업 중의 하나로, 추가적인 다양한 분석을 통해 연애·결혼·출산·육아에 대한 2030세대의 의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은 계속 이뤄질 계획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33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33호는

8월 12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